

할머니 DJ 만나고 고건축 단청여행 떠나요

전남문화관광재단, 문화교육프로그램 45개 확정
‘할머니가 들려주는 몸말 레시피’·‘토토와 떠나는...’ 등

동네 할머니들이 DJ가 돼 인생 이야기를 들려준다. 어엿한 배우로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도, 멋진 화가가 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문화예술은 어렵거나,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소박한 예술가가 될 수 있다.

전남문화관광재단이 올해 전남 지역에서 진행될 다양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확정했다.

최근 공모를 통해 45개 프로그램을 선정했으며 총 12억 4000만원이 투입됐다. 올해 프로그램은 농산어촌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고려자가 많다는 점을 적극 반영한 프로그램이 눈에 띈다. 각 프로그램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시기를 반영해 시작할 예정이다.

어른들의 삶의 지혜를 배우는 다양한 기획은 노인들 뿐 아니라 젊은 세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나주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 in 우림’이 진행하는 ‘할머니가 들려주는 인생 이야기’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직접 라디오 DJ가 되어보는 프로그램이며 장성의 ‘아트스페이스 소울부리’가 운영하는 ‘우리 할머니가 들려주는 몸말 레시피’는 어린 시절 할머니가 해주던 음식을 함께 만들어 나눠 먹으며 추억을 나누는 기획이다. 담양 ‘청년애고’의 ‘나는 동네에서 사람책을 읽는다’ 역시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토박이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다.

직접 예술인이 되어 보는 프로그램도 선정됐다. 목포 극단 새결의 ‘푸른 개구리 연극캠프-우물 밖으로’, 전통공연예술원판(광양)의 ‘어린이국악뮤지컬-심청’, 두루아트(화순)의 ‘음악대장과 피리부는 동네 꼬마들’, 큰 그림기획연구소(광양)의 ‘마음이 미술이다’ 등이다.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건강한 여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전남문화관광재단은 문화예술프로그램 45개를 선정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진행되는 ‘할머니가 들려주는 인생 이야기’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무안 동석인문에 술학당의 ‘신나는 걸리버 여행기’는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느꼈던 콘텐츠 탐해(강진)의 ‘고건축 문화유산과 함께 하는 단청 여행’과 ‘추억을 공연해-천만극장의 추억’도 눈길을 끈다.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선정됐다. 담양 보임미술관의 ‘토토와 떠나는 말랑말랑 예술여행’, 함평 놀이요점빵의 ‘나비마을 마음씨 놀이터’ 등이다.

한편 재단은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올 한해동안 한국민화뮤지엄(강진), 아산미술문화재단(곡성), 주식회사 아트포(화순),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등 6개 기관에 청년 문화예술교육사를 파견, ‘민화로 가득한 우리 가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문화예술시설 활성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어떤 서점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2년 전 ‘동네책방, 도시 아이코니’가 된다는 기획으로 수십 여개의 국내의 서점을 둘러 본 덕분인지 종종 듣는 질문이다. 그럴 때면 여간 난감하게 아니다.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처럼, 온라인 서점에 밀려 하루 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는 그들의 안타까운 현실이 떠올라서다.

그래도 굳이 하나를 꼽는다면 런던 패딩턴역 주변의 ‘워드 온 더 워터’(Word on the water)다. 우리말로 ‘물위의 말’쯤 되는 이 서점은 9년 전 도심을 가로 지르는 리프트 운하에 캄캄 등장했다. 젊은 시절부터 독서광이었던 40대 중반의 영국 신사 세명이

려움이 많았다.

2년간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자 세 사람은 런던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지금의 자리에 2개월간 무단 정박을 감행했다. 이에 리프트운하 관리회사는 막대한 벌금과 즉각 철거 등 법적 조치를 취했고 ‘워드 온 더 워터’는 폐점 위기에 몰렸다. 이런 안타까운 사실을 알게 된 런던너들과 ‘셀럽’들이 서점 구하기에 나서자 지난 2015년 운하관리회사는 마침내 ‘워드 온 더 워터’의 영구 정박을 허가했다. 자칫 추억속으로 사라질 뻔한 ‘워드 온 더 워터’는 시민들의 응원도 힘을 받으며 리프트 운하에 캄캄 등장했다. 젊은 시절부터 독서광이었던 40대 중반의 영국 신사 세명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

1920년 제작된 15m 바지선을 구입해 ‘물위의 서점’을 띄웠다.

하지만 바지선 서점을 오픈하는 데 큰 돈은 들지 않았다. 자신들이 읽었던 헌책들을 ‘매대’에 내놓기로 한 데다 직접 망치를 들고 배를 수리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가장 신경 쓴 ‘공사’는 지붕 위 스테이지, 지역의 뮤지션이나 버스커들의 공연무대로 활용하기 위해 마이크를 설치하고 음향 시설을 갖췄다.

2011년 5월, 역사적인 ‘출항’에 나선 ‘워드 온 더 워터’는 ‘세상에 하나뿐인’ 독특한 컨셉으로 단박에 지역사회의 이슈가 됐다. 하지만 14km에 이르는 리프트 운하를 무대로 ‘영업한’ ‘워드 온 더 워터’는 예상치 못한 불편을 겪어야 했다. 모든 선박들은 2주마다 정박에 따라 자주 옮겨야 하는 등 운영에

바이 로컬(Buy Book+Buy Local) 캠페인에 나섰다. 지역 농산물을 구매하는 로컬푸드 운동처럼, 동네서점에 서 책을 구입하자는 ‘책방 살리기 프로젝트’다. 이번 캠페인이 내건 슬로건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 동네책방 가는 길’이다. 지역에서 도슨, 자율책방, 소년의 서, 순천 책방집다, 목포 풍당풍당 등 책방 11곳이 동참한다.

‘코로나 19’ 여파로 요즘 미술관이나 공연장이 임시휴관에 들어가면서 문화 나들이가 울스뚝했다. 그렇다고 TV나 컴퓨터 게임 등으로 시간을 보낼 수만은 없을 터. 이럴 때, 내가 산 책 한권이 동네책방의 문을 계속 열게 하고, 동네 경제에도 보탬이 되는 책방 마실을 떠나자. 나와 우리가 행복해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광주의 원효’ 故 정의행 호남불교대학 교수

‘통찰의 언어 선문답 111편’ 출간

‘광주의 원효, 광주의 붓다’로 불렸던 고(故) 정의행 호남불교대학 교수. 고인은 평화실천광주전남불교연대 공동대표와 반전평화운동연대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세월호 광주시민상주모임 상주로 활동했다.

순천 출신의 고인은 1978년 봉선사로 출가해 승려의 길을 걷다 환속 후 5·18광주 민주화운동과 민주화 운동에 참여해 옥살이를 했다.

최근 생전의 그가 선언록 가운데서 가려 뽑은 ‘통찰의 언어 선문답 111편’(여의문화)이 발간됐다. 책은 지난 1992년 ‘선수행 모암’으로 출간됐던 ‘할’을, 이번엔 저자의 이름을 붙여 나오게 됐다. 저자는 책에서 선문답의 의미를 이렇게 풀이한다.

“선문답에는 선사들의 번뜩이는 기지와 명쾌한 직관의 지혜가 담겨 있다. 복잡하고 피곤한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그것은 무더운 여름날의 소나기처럼 시원함을 준다. 선문답은 무엇인가 떠밀려 자신을 잃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를 안겨준다.”



아울러 저자는 선문답의 화두를 오늘 시대의 시각에서 재해석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고정불변의 옛것이 아닌 오늘의 시각에서 새롭게 보아야 한다는 의미다.

“자칫 옛사람의 화두에 묻혀 오늘 이 자리의 살아있는 화두를 놓칠 수 없다. 타파해야 할 것은 옛사람의 화두만이 아니다. 이 시대 이 땅의 문제를 바로 보지 못한다면 재야무리 화두를 깨쳤다고 해도 그것은 거짓이다. ‘사구’가 되지 않으려면 현실의 삶 속에서 조영되어야 한다.”

책은 이처럼 선문답의 참뜻을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엮었다. 많은 선사 어록 가운데 일상적인 말로 나눈 선문답을 뽑았으며 선종 5가가 형성되기까지 마음의 등불을 이어 온 선사들이 포함됐다. 한편 고인의 저서로는 ‘한국불교통사’, ‘인물로 보는 한국불교사’와 역서로 ‘부모은중경’, ‘약사경’ 등이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디아카데미 수상 심은경 주연 ‘신문기자’ 재개봉

11일 CGV, 14일 광주극장

지난 6일 열린 제43회 일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배우 심은경에게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안긴 일본 영화 ‘신문기자’가 국내 관객을 다시 찾는다.

‘신문기자’는 오는 11일 CGV 광주터미널점과 14일 광주극장에서 각각 재개봉한다.

영화는 몇 년 전 일본을 뒤흔든 사학비리 사건을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국가가 감추려 하는 진실을 집요하게 쫓는 기자 이야기를 그린다.

현 정권의 정치스캔들을 다룬 만큼 일본

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지난해 6월 일본 개봉 당시 여러 제약에도 꾸준히 관객 수가 증가해 개봉 둘째 주에 박스오피스 8위를 기록했다. 국내에선 작년 10월에 개봉해 1만명가량을 불러모았다.

주인공인 사학비리 기자 요시오카를 일본어로 연기한 심은경은 일본 아카데미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일본 최연소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아울러 이 작품은 최우수 작품상과 최우수 남우주연상까지 3관왕을 차지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예술위, 문학나눔 선정도서 보급처 23일까지 신청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9년 3·4분기 문학나눔 선정도서 보급을 위한 보급처 신청을 23일까지 진행한다.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은 우수 문학도서를 선정·보급함으로써 국내 문학창작여건을 제고하고 선정도서 활용성과 프로그램의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2018년도에는 총 500종의 도서 35만9772권이 전국 국·공립 및 사립 공공도서관, 지역 문학관, 작은도서관, 병영도서관, 교정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센터 등 2113개소에 보급됐다.

2019년도 3·4분기 문학나눔 선정도서 보급처 신청은 도서관(공공 및 학교, 병영, 작은 도서관 등), 지역문학관, 사회복지시설 등 도서열람시설이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곳이면 신청 가능하다. 선정도서는 약 225종이며 보급처는 특정 도서를 선택할 수 없다. 문학나눔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하며 심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보급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국수나무 광주용봉점 (비엔날레)

북구 용봉동 1091-4(M-타워KB국민은행건물)
모든 메뉴 포장 및 배달가능
직접 전화 및 배달주문(배달의민족, 오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

우리 뷔페

남구 지석동 73-5번지 (포충사와 대촌동사무소 중간지점)
2월17일 오픈!! 청정과 새로운 맛으로 보태하겠습니다. (회사·단체 장부 환영)
☎ 062)381-0066, 010-3085-0140

개성전통한방삼계탕

서구 치평동 케이월하이빌 1층 삼계탕전문점
포장가능합니다.
☎ 062)383-3454, 010-2106-0424

남약장례식장

전남 무안군 심함읍 남약로 250번길 59-30
시그니티 요양병원 1층
최신시설 완벽 친절·신용·분위
각종장례용품 영가제공
☎ 061)285-0444

국제행복찾기 결혼정보

나주시 동점문길 8(중앙동98-6)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
최고의 만남을 추천합니다.
☎ 061)337-7712, 010-5288-3257

석당화랑

동구 공동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향촌

서구 상무화원로 32번길 29-3(차평동)
한우, 생선, 닭, 돼지, 양념갈비, 대패삼겹살
육회비빔밥, 계육볶음, 김치찌개, 냉면
시골떡국 단체손님환영
☎ 062)371-0583, 010-3947-0005

김동일쉐프

동구 지호로42(자산2동사무소입구 마트앞)
갈비해장국, 갈비탕, 육개장, 곰장전골, 무침조림
예약주문 각종모임환영
☎ 062)228-1975, 010-9622-8938

광명천막기업

북구 천변우로 285-1(누문동)
패션어닝, 철구조물창고, 차광막, 일반포장
파라솔, 자바라천막, 차호루
☎ 062)526-6153, 010-6646-7282

자동차 밧데리 할인마트

북구 자미로12(신안동128-7번지)
무료출장
☎ 062)252-1119, 010-9881-2922

천을귀인

동구 필문대로 191번길 19(산수동)
공건타로, 인생심리상담, 사주명리학
타로 배우실분 신청하세요!
☎ 010-7186-6894

초대화랑

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따뜻한내과.건강검진센터

북구 운암동 남양후튼2차상가 2층
소화기 내시경 전문의 2인
진료시간: 평일 오전 8:30~오후 6시
토요일 오전 8:30~오후 1시
원장 이상선·박민규 ☎ 062)511-3388

유가네한우곰탕 광주대인점

동구 대인동 324-18번지
30년전통 깊고 진한 곰탕의 맛!
한우맑은곰탕, 한우사골순대국, 한우사골설렁탕
한우육수 육개장 '모든메뉴 포장가능'
☎ 062)464-1425

연아불교용품

전남 나주시 영산포로 261-1 (영산포구역전앞)
불교용품, 무속용품 모든것
조상옷, 양초 판매
☎ 061)334-0088

고전방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희중 ☎ 062)224-4869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 062)222-6866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